

總 評

金 元 龍

제가 총평자라는 것을 안내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진홍섭선생님도 계셔서 이것이 무슨 대학에서의 연습도 아니고 특정발표에 대한 총평도 아니고 그런 실례스러운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여겨, 저는 진선생께서 말씀하시면 사양하려고 했는데 진선생께서 입원을 하셔서 부득이 나왔지만 총평을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저 뭐라 그럴까 저의 인상이라고 할까 소감같은 것을 죽 말씀드리고 그것으로써 책임을 다할까 합니다.

사실 제가 정년후 고고학이나 미술사의 공부를 실질적으로 그만두어서 그런지 논문을 읽어도 귀에 몸에 머리에 쪽쪽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차츰 책과도 멀어지고 머리도 점점 둔해져가고, 최근에는 아마 전공이랄 것도 없지마는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한 감각도 잃어가고 있는 상태이며, 미술사 전반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실감있게 느끼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 중에 엉뚱한 것이 있으면 그저 “저 놈이 노망이 시작되었구나”하고. (웃음)

오늘 발표요지를 보니까 10년씩 잘라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로 나누신 분과, 대상분야별로 발표를 하신 분과 그리고 중요한 토픽을 뽑아 그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사를 정리한 세 타옴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런 뒤에 종합적인 견해와 전망을 해 나갔는데, 논문으로서 읽으면 각각 그 장점이 이해되었지만 요번 발표와 같은 경우에는 중요 토픽을 뽑아서 정리하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쉽고 또 발표하는 실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슨 점수매기는 것은 아니지마는 오늘 발표에서 제가 특별히 느낀 것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내려갈수록 실력이 좋아지고 발표 역시 3세대에 속하는 분이 저로서는 특히 인상깊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조각에서 광동석, 최성은 두분의 발표가 아주 뛰어난 발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최성은씨는, 미술사학계에 현재 여성분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지만 그런 여성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진 분 같습니다. 최성은씨 경우를 보면 문제에 대하여 자기대로의 확고한 지식과 신용을 가지고 논문을 비평했습니다. 그 비평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말하려는 뜻을 行間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아 발표자에 따라 연대 등이 다르겠지만 60년대를 1세대로 보았습니다. 60년대는 기초조사, 자료조사 등의, 솔직히 말하자면 獨學한 사람들이 일하던 시기라는 점에서 학문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미술사학의 초석을 놓기 시작한 때라고 보는 데에 의견이 일치된 것 같습니다. 70년대에 들어가면, 건축분야에서는 75년경을 전후해서 그 이전은 기술적인 실용성을 목표로

연구조사되었지만 75년이후에 가서는 건축사학적 연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대체로 70년대는 제2세대로서 미술사 연구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양식연구로 방향이 돌려졌던 시기로 파악되고, 다음 80년대는 3세대 시기로서, 사람에 따라 성숙기라는 말을 할 수 없이 썼다는 말도 나왔지만, 성숙기 또는 수확기로서 연구방법의 과학화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업적 또한 각 분야에서 개설서가 나오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강경숙교수의 도자사라든가 문명대교수의 조각사, 안휘준교수의 회화사 등의 개설서가 나옵니다. 저는 개설서의 내용이 어땠던 간에 한 분야에서 개설서가 나왔다는 것은 學史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그런 것을 좀더 비판하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평이 있었으면 하는 것 등이 지적 또는 논의되지 않은 것이 참 아쉽습니다.

말을 바꾸어 60년대는 중고교시대이며 70년대는 대학생시대, 80년대는 대학원시대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미술사란 학문은 아직 나이 어린 학문입니다. 해방전에 고유섭선생 같은 분이 계셨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술사학의 실질적 연령은 30년정도입니다. 한 학문의 전통이 자리를 잡으려면 1세기는 걸려야 합니다. 우리의 실정은 한국미술사도 없고 중국미술사도 일본미술사도 서양미술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사실 미술사학이 있다고 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미술사학회가 생기고 서양미술사학회도 생겨서 한국미술사가 세계미술사 속에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한 점에서 한국미술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에서, 아까 김리나교수도 그런 것을 강조했지만 비교사와 같은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명대교수께서 전반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 지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84년인가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책으로 문명대, 김리나, 안휘준 등 여러 분이 쓴 『韓國美術의 美意識』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느꼈지만 미술의 양식은 문명대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다원적이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술을 한가지 양식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시대에 따라 바뀌고 분야에 따라서 바뀐다는 지적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미술의 특색에 대해 말했을 때에, 양식이란 것이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지역, 민족 등으로 자꾸 커가며 그 개인양식도 시대에 따라 다르듯이 양식의 다원화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시대, 지역을 초월한 한국민족미술로서의 어떠한 초시대적 초지역적 초분야적 기본양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主義라는 말을 붙여서 내가 옳다 그것을 믿으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다원적으로 파헤치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묶어 무언가 한국적인 게 나타나지 않을까, 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거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秋史의 말씀으로 문구는 정확하지 않지만 학문은 “至廣至大”라, 즉 학문은 넓고 크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학자가 가질 태도는 “唯篤慎耳”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학문이라는 것은 크

고 넓은 분야 속에서 진리를 찾되 진리란 결코 찾지 못하니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찾을 수 있다면 학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문이라는 넓은 바다 속에서 헤매고 헤엄치다 죽어 없어지고 또 그러다 마는 것이 학문이 아니냐, 그래서 미술사도 결국 그런 것으로서 추사의 “지광지대 유독신이”라는 것이 학문의 길이 아닌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끝에 가서는 한국미술사 또한 그런 태도로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자에 대해 하나하나 죽 길게 뭐라고 메모해논 게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말씀드릴게 없고, 90년대부터는 제3세대, 제4세대가 활약해서 한국미술사가 정말 학문이 될 때가 왔다고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저도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뭐 뜨거운 열기라고 할까요, 학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 이하 간부 여러분 그리고 나와주신 회원 여러분과 함께 느낀 바가 큼니다. 혹 실례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감은 이상과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회 장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많이 와주시고 끝까지 열기있게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특히 삼불(金元龍)선생님께서서는 저희들도 피곤한데 어제부터 꼬박 앉으셔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 모든 분들께 더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발표결과가 앞으로 우리 학계 발전에 중요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워낙 장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리셉션이 있게 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미진한 것을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